



홈페이지 바로가기

IURC Newsletter

인 천 광 역 시 도 시 재 생 지 원 센 터

Vol.4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Contents



도시재생 현장 통신

“

새로운 공감과 가치를 공유하는
남산마을 도시재생

”



도시재생 전문가 칼럼

주민,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리적이며 원만한 소통 필요

- 청운대학교 장동민 교수



시민기자단 우수콘텐츠

라예지

1883 개향살롱에 놀러오세요

이종민

50년의 단절,
다시 돌아온 사람의 길

조연희

꽃길만 걷게 해 줄게
화수정원마을



IURC NEWS

-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4기 수료식 개최
- 인센협 10월 창립 추진
- 제2기 IURC 시민기자단 발대식 개최
- 소규모 재생사업 M.C단 운영
- 인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동정
- 도시문화책방 오픈

새로운 공감과 가치를 공유하는 남산마을 도시재생



남산마을의 옛 이름은 부조현구신골(不朝峴舊臣谷)이다. 부조현은 새로운 왕조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붙여졌고, 구신골은 고려 신하들이 강화를 남산리 일원에 은신해 숨어살며 조선왕조에 출사를 거부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흔히 옛 명칭 그대로 불리기도 한다.

남산마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성문 밖 마을이다. 그동안 도시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말 그대로 발전 없는 마을이라고 한다. 1960~80년대에는 우시장과 화문석시장이 형성되어 활기를 띠었으나, 그나마 사라지고 지금은 이렇다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이 이야기는 남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일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2019년 1월, 남산마을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수많은 모임과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대와 열정이 가득한 주민모임, 사업성과를 높여주는 센터 자문단 회의, 지원체계를 갖춰가는 행정부서 등 모두가 혼연일치 되어 남산마을을 위한 협력관계를 견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남산마을 재생사업은 2022년까지로 사업계획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사업으로 주민활동지원과 주민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배치하여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마을 신활력사업으로 마을카페, 마을공방, 마을민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활성화사업의 주민생활 편의성과 인프라구축 분야에 접목하여 성과를 높이고 있다.

농촌도시마을의 전문 인력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과정에서의 문제해결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센터가 운영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서, 우수대학, 건물주와

의 업무 협력관계를 통하여 방법적약개선과 지역분석연구, 주민활동공간의 무상임대 등을 협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 확장성을 넓혀가고 있다.

도시경관은 재생사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남산마을은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진행과 향후 마을유지관리 및 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모든 단계에서 주민과 공감되어야 하고 논의되어야 한다. 사업의 성패는 주민참여에 있다. 다양한 주민역량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한층 중요한 것은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남산마을은 역사 깊고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이 고락(苦樂)을 함께 하고 있다. 선대(先代)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정체성을 부활시켜 후대(後代)에 희망을 전하려 한다. 삶의 터전을 보전하고 일구어 나가는 도시재생의 가치를 담아 살기 좋고 풍요로운 남산마을을 이루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센터장 남 명 우

주민,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리적이며 원만한 소통 필요



최근 정부는 새로운 도시재생 접근 방법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 공간의 물리적 개선을 뛰어넘어 비물리적 즉, 사회경제, 환경 활동을 포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 서구 상생마을은 주거지원형에 공모하여 선정되었고, 지난 2018년부터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쇠퇴한 도시 공간을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과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목표입니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전연 재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계획적 속고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사업입니다. 사실 낯설기도 하고 주민, 행정, 전문가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사업이기에 갈등과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특히 주민갈등, 계획 변경 등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이란 목표 사업 기간 또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에는 짧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은 지속성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완성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4년의 본 뉴딜 공모사업은 그에 첫 단추를 끼워내는 일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가장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생마을의 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은 생각보다 긴 준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행 초부터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그 공간을 사용과 운영할 사람이 결국 지역주민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계획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생마을에는 공방 1, 2호 신축과 도로개선사업, 집수리 사업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계획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갈등도 있었으나 행정과 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계획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의 변화가 가시화할 예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은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같은 마을 운영 조직체를 만들어 향후 자생적 역량으로 마을을 운영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상생마을 현장지원센터는 시행 초기부터 도시재생대학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으며, 주민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 내 사회경제 활동조직을 구축해 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 예정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화 계획의 수립 과정은 그 태동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행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업 선정 후 주민과 함께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하나의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진행형 사업입니다. 여기서 **지역주민이라는 존재는 무기적 존재가 아니라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상생마을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마을주차장을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아주 큰 마을 마당을 갖게 됩니다. 마을 일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주민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도시재생을 위한 논의의 장이 활발히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교수 장 동 민

1883 개항살롱에 놀러오세요

원문 보러 가기 >>



인천 중구 개항장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하여 근대 문물을 처음 받아들이는 역사 깊은 장소입니다. 약 140여년이 흐른 지금 그 자리에는 '1883 개항살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살롱의 사전적 의미는 서양풍 객실이나 응접실이라는 뜻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교적인 모임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883 개항살롱은 시민들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개항장과 내항의 현장지원센터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지구 내에서 지역주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들으며 가교역할을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1883 개항살롱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 가보면 원목 테이블이 있어 실제 주민들이 방문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천 내항 지역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나이대의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의견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벼룩시장, 해양 스포츠, 게임대회 등 상상플랫폼과 1.8부두에 시민들의 창의적인 활용 방안들을 보며 그 열정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려보면 커다란 개항장 안내지도와 1.8부두 모형 전시가 눈에 띄입니다. 개항장 안내지도에는 공방, 뮤직 클럽, 카페, 오랜가게 등 인천 개항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갤러리 및 회의 장소가 나옵니다. 시민 혹은 도시재생 관계자를 위해 사용하는 곳으로 현재는 코로나 19로 소모임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안 벽에는 인천 내항 재생 마스터플랜 그림과 화도진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1900년대 인천항의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개항장에서의 삶을 포착한 흑백으로 된 오래된 옛날 사진은 오늘날의 개항장 모습이 미래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1883 개항살롱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2시~6시에 개방한다고 하니 방문 시 미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7월 초에 다시 개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제1기 시민기자단
와 예 지



50년의 단절, 다시 돌아온 사람의 길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서구 석남동에는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석남역과 가정중앙시장역을 연계한 상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집수리 지원 및 주택 리모델링 등 주거복지 개선 등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남동의 가장 큰 상권은 거북시장입니다. 거북시장에서는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도로 좌우로 어지럽게 늘어선 노점상에게 1, 2층의 매장을 제공하고, 주



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들이 들어선 거북시장길은 거상 축제, 거북로 주말 문화의 밤 개최 등 지역주민들의 축제의 장, 플리마켓, 오프라인 공연장 등으로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의 10.45km 고속도로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었죠. 진출입로가 생기고 운행 최고 속도가 변경되는 등 운전자들은 이미 그 차이를 느끼고 있을 텐데요. 2025년까지 8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줄이고, 나머지 2차로 구간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소식도 들으셨나요? 석남동 양쪽 마을의 소통과 교류를 막았던 경인고속도로의 방음벽도 모두 철거한다니, 그야말로 양쪽 마을의 물고기가 트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람을 위한 길,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다닐 때는 그저 답답하게만 보였던 방음벽이 50년이나 이 동네를 단절된 지역으로 만든 것이라니 외부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실거주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완료되면 굳게 닫혔던 문을 개방한 것처럼 주민들의 생활도 크게 달라질 거라 기대하며 소통과 회복, 경제 활성화, 힐링되는 삶의 여유를 통해 상권과 주택 모두 조화롭게 번영하는 '사람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제1기 시민기자단

김양현



꽃길만 걷게 해 줄게 화수정원마을



화수정원마을이 위치한 동구 화수동일원은 마을의 고령화, 주택 노후화 및 공폐가 증가로 마을의 활력이 저하된 곳이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의 필요성 및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행복주택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역량 강화, 마을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안심 골목길 만들기, 소일거리 창출 및 마을의 지속성 확보 등의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수정원마을에서는 행복주택이라고 불리는 기능 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선투자한 행복주택 조성은 기업 근로자 및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줌으로써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과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재생을 위한 지역 변화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수정원마을은 그 전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개선된 주거환경이 인상깊은 곳이었습니다. 화수정원마을은 빌라촌이 밀집된 마을로 지역 내 빌라촌 방범안전, 학교변 안전, 공폐가 쓰레기 배출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공모사업의 추진으로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 빌라 사이 공간에 19개의 안전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전문은 방법의 효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전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 활용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공하였습니다. 방치된 빌라 사이 공간 이외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과거, 유휴공간은 쓰레기 더미와 각종 건축자재들로 가득 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건축자재들과 쓰레기더미를 치우고 직접 철조망을 제거하면서 마을의 재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화수정원 마을 구석구석을 거닐다 보면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정원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에 화수정원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개한 꽃이 그려진 벽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설렘했던 담벼락이 화사한 꽃들로 장식되어져 있어 마을 분위기가 한층 더 생기 있게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는 곧 지속적인 도시재생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곳은 마을의 고령화로 마을의 활력이 저하되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마을에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업기간동안 행복주택 조성이 완공되어 더 발전된 마을, 마을 이름처럼 꽃이 만개하고 정이 가득한 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제1기 시민기자단
박성희





IURC NEWS



0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4기 수료식 개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2일 센터 교육장에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4기'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금번 심화과정은 8월 18일부터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마을자원조사, 지역 문제점 분석, 핵심사업 도출, 도시재생 목표와 비전, 전략구상 등 도시재생 사업 발굴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총 6주간 3개 조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의 특징은 광역센터 기본과정 수료자 뿐만 아니라 지역센터(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 운영하여 센터간 교육협업을 통한 지역특화형 과제를 도출하는 등 도시재생대학 통합 플랫폼의 기초를 구축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 운영 단계부터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더불어 센터 자체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생들의 코로나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수강생들은 "금번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었다"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심화과정과 연계하여 10월 중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하여 한발 더 나아간 교육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02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10월 창립 추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23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모여, 인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센터장 정례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협의회는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과정을 통해 조직의 내실과 방향설정을 다져나가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여러 센터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직의 정관, 사업계획, 창립절차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각 센터는 이번에 창립하는 협의회를 통해 현장에서 얻어진 집단 지성으로 도시재생 현장형 정책개발과 상호 사업지원, 센터역량강화 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진행중이지만, 협의회는 오는 10월 26일(예정) 창립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일 행사는 인천의 도시재생 현장의 현황과 각 센터들의 인식을 공유하는 도시재생포럼과 연계해 치러지는데, 여러 센터의 구성원 뿐 아니라 인천시, 군·구 공무원도 참여해 협의회에 대한 다양한 요청을 모아낼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이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사업계획과 협의회 운영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IURC NEWS



03

제2기 IURC 시민기자단 발대식 개최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박인규)는 9월 28일 제2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기자단(이하 '시민기자단') 발대식을 인천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승우 사장을 비롯한 제2기 시민기자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단에게 위촉장과 기자증을 수여했습니다. 센터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민기자단을 공개 모집하고, 인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역량, 관련 경력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2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민기자단은 기사기획·작성, UCC,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도시재생에 대한 색다른 시각과 접근방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기자단은 직접 현장을 발굴하여 발로 뛰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천 도시재생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는 제2기 시민기자단이 인천 10개 군·구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장소들을 발굴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될 콘텐츠를 시민의 손으로 발굴하는 다양한 사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04

소규모 재생사업 M.C단 운영



지난 9월 2일(수)부터 9월 3일(목)까지 소규모재생사업 M.C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규모재생사업 M.C단은 지역주인이 원하는 사업을 다수 발굴하여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하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는 인천시청 안길재 주무관, 손영민 주무관, 구청 사업 담당 팀장 및 담당자, 인천연구원 조상운 박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오정섭 팀장, 정운선 코디 등 사업별 약 10여 명이며 총 5개 사업(남동구, 동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과 관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소규모재생사업 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의 적격성, 주민 및 중간지원조직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사업 목표 및 전략의 특성화 등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소규모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가 능한 2021년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해봅니다.



IURC NEWS



05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동정

지난 5월 협약한 주민주도재생 공모사업 7개 주민사업과, 6~7월 협약식을 맺은 새싹재생 공모사업의 18개 주민단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8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공모사업이 대폭 확장된 반면 코로나19의 여파까지 겹쳐 제한된 범위로 진행되었음에도 현장의 다양한 주민활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활동으로서 개항장을 돌아보고 지역 매거진을 통해 지역을 기록하고자 하는 <인더로컬>은 충실한 조사와 자체 교육, 강원도의 사례 탐방 등 알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꿈꾸는 기획과 재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성과에 대해 기대가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에 오랜 기간 정착해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발견해가며 주민 스스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모색하고 있는 <배다리 연구회>도 그간의 지역활동과 지역, 문화에 대한 주민토론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도 주민활동의 성과가 지역자산을 삼고자 하는 주민현장에서 12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외 지면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다른 주민공동체들도 모두 각자 지역이 갖고 있는 다채로운 색깔의 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일차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06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문화책방 오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0월중 센터 사무실 내에 도시문화책방을 오픈합니다. 센터는 도시문화책방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 서적과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시문화책방에는 도시재생 서적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건축, 공동체, 인문사회, 문화예술과 같은 분야별 전문 서적, 인천의 역사와 정책자료 등 200여권의 책이 구비되어 있으며 향후 발간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해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시민과 인천 소재 직장과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중인 생활기반자에게는 회원가입을 통해 1회 2권, 14일간 도서대출도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문화책방을 통해 인천시민들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 더불어 도시재생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www.iurc.or.kr

Tel : 032-260-5352~4, 5362~5, 5372~5 | Fax : 032-213-6110

(221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95번길 25 3층 (도화동)